



“버스 빨리 안오나”

강추위를 동반한 눈이 내린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3.6도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추위가 계속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대설주의보

휴일인 20일까지 폭설과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흐리고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17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영광과 함평, 목포 등 서해안지역은 5~15cm, 그 밖의 지역은 2~8cm. 기상청은 전남 오후를 기해 광주와 영광, 함평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2도로 전남보다 더 낮겠다.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22일째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후 6시 현재 적설량은 영광 7.5cm, 광주 3.2cm 등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市·道 경제살리기 노력 부족했다

행안부, 일자리·서민생활 2대 시책 평가

### 광주시·전남도 중하위권

올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추진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2대 분야 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향후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제살리기 분야 사업에 대한 노력이 더욱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가 17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2대 분야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남도는 2개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고, 광주시의 경우 중간 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분기, 상반기에 이어 3번째 이뤄진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청년 인턴십과 취약계층 지원 등 12개 시책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강원, 충북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민생활 안

정 분야에서는 인천과 대전, 전북, 충남, 충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청년인턴,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1/4분기만 높은 점수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상반기와 이번 최종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인 ‘나’ 등급을 받았다.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는 1/4분기

와 상반기는 ‘나’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최종 평가에서는 ‘나’ 등급을 받으면서 2개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3차례 평가에서 모두 ‘나’ 등급을 받았고,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는 1/4분기와 상반기 두 차례 ‘가’ 등급을 받았다가 이번 최종 평가에서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인 ‘나’ 등급으로 하향했다. 다만, 분야별 세부평가 결과 청년실업대책 사회적 기업 육성 부문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청년실업 대책의 경우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감률을 평가한 결과 광주

는 2.39%로 광역시 부문에서 1위를, 전남은 1.06%로 충북과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 육성 부문에서 전남도는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114억5천667억9천 원으로, 전국 평균(6억5천4만4천 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광주시도 구매실적이 14억9천686만3천 원으로 높았다.

사회적 기업 공공서비스 위탁역도 광주가 31억2천695만6천 원, 전남이 30억4천259만1천 원으로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이처럼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제살

리기 2대 분야 사업 추진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실업해소와 고용확대 등 지역 경제지표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생활안정 분야 실적은 더욱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더욱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강원, 충북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인천과 대전, 전북, 충남, 충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유공 공직자를 포상하기로 했다.

/최권일-윤영기기자 cki@kwangju.co.kr



## 초·중 과목 10개→7개 축소 고교는 5개 영역→4개 영역

교과부, 2011년부터

2011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고교는 3년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지나치게 세분화 처리를 강행, 연방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파행 처리나 연내 처리 무산은 여야 모두 호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국회 예결위 점거

여야 정면충돌...지역현안 예산 확보 비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 상임위 등에서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련기사 4면> 17일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친박연대와 공조해 예결위 구성안 의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이 4대강 예산삭감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통령+여야대표 회담' 이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요구하며 예결위 의결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결국 한나라당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10시44분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개회와 정회를 동시에 선언했고, 한

나라당 의원들은 곧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이처럼 예결소위 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 연방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파행 처리나 연내 처리 무산은 여야 모두 호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바람이 불면  
아이스크림의 상으로 시원하세요.

innisfree